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토끼목’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발표하게 된 이정윤, 임경석 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의 큰 주제를 ‘건강’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어서 건강을 되찾으려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도와줄 건강은 바로 목 건강입니다.

이 그래프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목디스크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함께 목 디스크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기기로 영상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목 디스크의 발병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 디스크는 주기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거나 스트레칭만 해주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신의 자세를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목이 굽어젔음을 알려주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사 제품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목을 전체적으로 감싸서 교정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 제품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용자에겐 부담스러우며, 평균 가격이 8만원대로 비싸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베개 형식으로 교정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사용할 수 없으며, 누워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습관으로 굳히기 힘듭니다.

다음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이 제품은 목이 굽어졌음을 스마트폰의 자이로 센서만을 사용하여 측정하므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며, 독서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